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새해를 맞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어 12월호에 글을 쓰게 되니 정신없이 보낸 지난 열 한달을 생각하며 '80년대라는 고개를 넘기기가 정말 힘이 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90년대가 시작된다고 해도 희망보다는 GATT라는 곳에서 앞으로 8년 이내에 농축산물을 완전히 수입 개방하라고 결정하였다는데, 한 해가 지나면 7년후 완전 개방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 하루 하루를 보내는 기분일 수 밖에 없다.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입 개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미 수입 개방이 되기 전에 금년 1년간 장기간의 불황으로 폐업·전업·도산하는 양돈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80년대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90년대를 시작한다면 '90년대의 경기회복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달동네에서는 연탄사기가 힘들다고 한다. 웃돈을 얹어주지 않으면 배달이 어려운데,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들의 노고도 생각해야 한다. 연탄리 어가를 끌고 고개를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는 밀어주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옷에 연탄가루가 묻거나 손을 씻어야 하고, 누가 보면 쑥스럽기 때문이

다. 개중에는 그저 당연한 일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아마도 요즘 양돈농가를 볼 때 연탄을 가득 싣고 고개를 올라가는 것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개중에는 힘이 없어 고개에서 굴러 떨어지는 농가도 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양돈업자를 밀어달라고 소비자에게 호소하고 TV·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도 호소한다. 연탄장수가 힘들게 고개를 올라갈때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때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기쁜 표정으로 가족들과 저녁상을 받으며 아직도 세상은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다고 웃음꽃이 필 것이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밝고 명랑해질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짜증스러운 얼굴로 귀가하는 가장을 가족들이 대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아지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금 어려운 양돈농가를 밀어주면 사회는 그만큼 밝아지고 자기가 이익만 생각해서 쇠고기나 돼지고기통조림 등 수입 농축산물이 값싸다고 사 먹으면

“ 양돈은 성인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제 돼지고기 통조림이 수입되는 마당에 한 달 후면 소시지까지 수입개방이 되는데, 양축농가들에게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국내옥수수농가, 콩농사 짓는 농가들까지 리어카에 태우고 고갯길을 올라가라고 하니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농촌으로부터 짜증과 불만이 높아지고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겠다고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매달리거나 꼬집어 내리는 순악질 인사들도 있다. 농축산업계가 어렵거나 말거나 돼지고기 통조림을 수입해서 더 많이 팔려고 혈안이 된 재벌회사들은 돈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국내 양축농가들이 괴로워 하는 것을 보고 즐기 위한 반농민기업으로 놀부심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수입최고기도 이렇게 어려울때는 방출을 중단했다가 생산비고가에 올라가면 방출해도 되련만,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짐이 되고, 네 힘으로 고개를 넘으라고만 한다면 명랑한 사회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성인군자가 양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돼지고기통조림은 물론 이제 한 달 후면 소시지까지 수입개방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국내 옥수수농가, 콩농사 짓는 농가까지 양축가들이 리어카에 태우고 고갯길을 올라가라고 하니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8일 농민들이 짐을 덜어 달라고 외치는 것도 원천 봉쇄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고개를 넘는다고 해도 넘지 못할 동료들 때문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클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국민소득(GNP)이 1인당 4,040\$ 이고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어내 선전국대열에 섰다고 자랑들 하지만, 외국인론들은 4마리의 용에서 3마리의 용과 한마

리의 지렁이라 비웃으며, 우리가 농축산물 등 수입개방을 하니까 그들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

국민소득이 4,040\$이 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도 따지고 보면 환율인상 덕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연 도 별	1인당 GNP	원화로 GNP
'85	2,194 \$	191만원
'86	2,503	220
'87	3,098	254
'88	4,040	295

'86년 이후 3년간 2,503\$에서 4,040\$로 61.4%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되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220만원에서 295만원으로 34.1%가 증가해서 27.3%는 환율 인상에 의한 것으로 첫배만 부른 것이다. 또 34.1%의 증가도 지난 3년간 물가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연평균 4~5%는 되므로 실제 소득증가는 20%를 약간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4,040\$ 하니까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는 국민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축산농가는 고갯길이 아닐 수 없다.

22일 농정 책임자가 농민단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농축산업은 정치·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고갯길을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표현이다. 문제는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쓰고 퇴근길에 고갯길을 올라가는 청소부 아저씨나 연탄집 아저씨를 맞다면 밀어주어야 할텐데 하면서 그대로 지나갈 필자임을 나 자신 너무 잘 알기에 슬퍼질 수 밖에 없다. 實話